

# 100여점 대작에 담긴 40년 예술혼 결실

국립군산대 미술대학 김정숙 교수 정년 퇴임 기념전 11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개최

전북을 대표하는 여류 화가이자 국립군산대 학교 미술대학 김정숙 교수가 정년을 맞아 자신의 예술 인생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시절 인연·축복'이라는 주제로, 40여 년간 화폭에 담아온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 개막식은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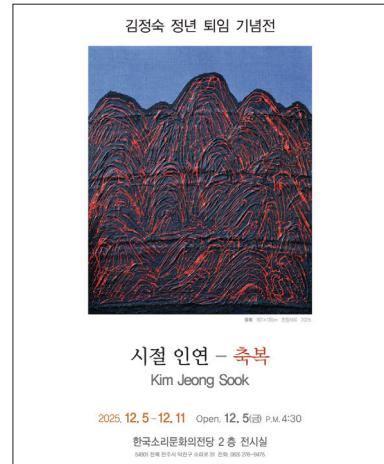
김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100여 점의 대작 작품을 선보인다. 20대 청춘 시절부터 최근까지 시대별로 구성된 작품들은 한 여성 예술가가 삶의 기쁨과 아픔을 어떻게 색과 형태로 승화시켜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작품마다 배어 있는 따스한 운기와 깊이 있는 감성은 바쁜 일상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위로를 건넨다. 한 점 한 점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삶 자체가 응축된 기록이자 치유의 메시지다.

김정숙 교수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

"19살에 원광대학교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조교와 시간 강사를 거쳐 30여 년을 교수로 살았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학생들과 연구, 그리고 작업 속에 있었죠. 그렇게 쌓인 시간이 어느새 작품으로 남아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이어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봉우리(K2)를 향한 또 하나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더욱 자주롭고 담대하게 작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정숙 정년 퇴임 기념전 포스터

전시장에는 특별한 감동이 더해졌다. 남편인 이동환 전북대학교 교수가 '인생의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아내의 예술 인생을 축복하는 시를 썼다.

"여러 날 쑤켜 쌓인 시간의 그림자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고 보이는 것을 비우는 삶의 여정을 지나, 이제 새로운 여백으로 돌아갑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시구는 한 예술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의 진심 어린 응원이었다.

김 교수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중국, 흥

콩,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과 국내에서 38회의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 미술 대전 특선 3회, 입선 7회를 포함해 한국미술협회 미술인상, 동서미술상, 하림예술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국제 청예술인 대상 등 긍지한 상을 받으며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 꾸준히 실천해 온 나눔의 행보다.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북 여류화가협회 회장, 전문직 여성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이동 미술 치료의 이론과 실제』, 『이동 미술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의 저서를 통해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이번 전시는 한 예술가가 40년 넘게 걸어온 시간과 그 속에 담긴 감사, 축복, 성찰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관람객들은 작품 하나하나에서 삶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의 말처럼, 김정숙 교수의 예술 여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 예술가의 진솔한 삶의 기록을 만나고 싶다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3층 전시실을 찾아보자.

/이만호 기자

## 완주 남계리 백자사발지석, 국립전주박물관서 첫 공개

안중근 특별전 윤지총 · 권상연 백자사발지석 2점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에서 완주군 남계리 유적에서 출토된 윤지총 · 권상연 백자사발지석(誌石) 2점이 최초로 공개돼 큰 관심을 모고 있다.

특별전은 내년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완주 남계리 유적에서 2021년 발굴된 백자사발지석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의미 있는 자리다.

백자사발지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인 윤지총(1759~1791)과 권상연(1751~1791)의 유해와 함께 출토된 유물로, 사발 내부에 피장자의 이름과 기록이 묵서(墨書)로 남아 있어 틱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순교자의 실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희소성, 원형에 가까운 보존 상태 등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시 담당자는 "이번 특별전에서 소개되는 백자사발지석은 조선 후기 천

주교 순교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이라며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은 신앙인이었던 인증근 의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독립 정신과 깊은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자사발지석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항쟁·정신'의 역사적 흐름은 관람객들이 안중근 정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조남이성지 내 완주 남계리유적의 국가 사적 승격 추진,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연계 전략 강화, 지역 천주교 초기 공동체 유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전북 지역 국가기관과의 협력 사업 고도화 등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전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서예 작품과 관련 자료를



권상연 야고보 백자사발지석 명문

통해 그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재조명하는 전시다. 완주군의 백자사발지석은 전시 내 '신앙과 민족정신의 뿌리' 섹션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 군산서 즐기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 파티'



예정이다.

시는 행사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겨울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첫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모두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산타가 방문하는 관광명소 배송지 찾기, 산타의 캐롤 헬лин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벤트 성공자에게는 수제맥주 교환 쿠폰이 제공되며, 게임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 수제맥주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펑거푸드 케이터링을 제공하고 K-관광섬과 연계한 지역특화 디저트 2종(롯 카라멜 바, 짬뽕빵)까지 시식 체험이 이어진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소원카드를 크리스마스트리에 부착하는 '나이터질지니~ Wish in gunsan'을 통해 군산의 겨울밤을 한층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시는 이번 행사로 지역 자원인 수제맥주와

연계한 새로운 겨울철 특화 콘텐츠 제공, 야간 관광 활성화, 체류형 관광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참가자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1인당

1인 2,500원으로 프로그램 신청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인스타그램) 및 게시글 내 정보인식부호(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는 이번 행사는 지역 자원인 수제맥주와 연계한 새로운 겨울철 특화 콘텐츠 제공, 야간 관광 활성화, 체류형 관광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참가자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1인당

1인 2,500원으로 프로그램 신청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인스타그램) 및 게시글

내 정보인식부호(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파와 굿파

### 4부 '굿파와 전쟁' (2)

##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있더라고요."

연기력이 슬며시 끼어들었다. 눈들이 연기력에게 모이졌다.

"여기 봉립에는 면서기 하는 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경찰, 군인도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며 권력을 휴 차들이고 일제에 복무한 친일세력이라 타도해야 할 사

람들이라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다 친일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박규환은 강병도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강병도 가족은 봉립 미을 사람이라고 친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마을과 마을이 너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기 마을 사람들도 황전을 공산당 미을이라고 암잡아보고 말이야."

네 사람들은 한동안 천장이 내려앉도록 긴 한숨만을 내쉬었다.

"그나저나 굿을 못하게 하면 우린 어쩌지요?"

"고장의 온 동네가 굿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소. 황전만 못하는 거지."

"양반도 상놈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밀하자면

다 같은 우리민족이고, 또 우리가 하는 굿은 모두를 아울러서 힘들 때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행위 아니겠는가. 누구도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말이지.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타파하려 들더니……."

그때 밖에서 누군가 웃는지 혀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동태는 안방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강용대였다. 정읍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일제 강점기 때 육군에 지원하여 함흥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이전에 12월에 육군 오장으로 만기 제대한 뒤 재소집되어 평양 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황전에서는 박대우가 하는 일들을 다들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무슨 회의라고해서 나가서 들어봤더니 글쎄, 봉립 사람들을 막 육하고

그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땅이 있어졌다.

그는 굿을 못하게 하면 우린 어쩌지요?"

그는 굿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소. 황전만 못하는 거지."

태평소와 관현악으로 문을 열고, 판소리 심정

가 중 '심정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대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청의 바다는 즉흥성과

자유로운 연주가 특징인 시나위에 구읍과 살

풀이를 더한 '구을 시나위'가 이어지며, 이후

노동하는 삶을 담은 방아티령, 줄 꼬는 소리,

사랑·이별·그리움·고난 등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구성지게 표현한 △육자배기가 무대를

채운다.

마지막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가 우

아하고 절제된 춤사위 속에 내면의 힘과 장중

함이 깃든다. 전통의 선율과 장단 반주 음악을

유지하면서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해 현대 관

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립국악단, 송년 민속악공연 '온고지신' 개최

남원시는 청이원에서 오는 12월 오후 7시 30분과 13일 14시에 2025년 남원시립국악단 송년 민속악공연 '온고지신'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시민들에게 전통의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연말 위로 무대로 남원시 시민에게 건네는 문화적 연말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연은 무료로 전 연령 관람이 가능하며 남원시립국악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온고지신'은 전통이 지난 고유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선인들이 남긴 민속악의 숨결을 오늘의 감성으로 익기 위해 기획되었다. 소리광대 이승민·김도희가 극적 해학과 현장감을 더해 공연 전체의 흐름을 이끈다.

특히 공공기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올해 신규 인증 공공기관 9개소 중 8개소(80%)가 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인증을 획득해 공공부문에서도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견인하는 성과를 입증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